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

구본규***

1. 서론

전체 인구 대비 거주 외국인의 비율(2.8%, 2012년 1월 현재, 안전행 정부)이 여전히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입 이민자들의 수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외모·언어의 차이로 인한 이주민들의 가시성 때문에 국제이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입이주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구성의 다양화는 한국의 다른 사회문화변동처럼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의 증가와 민족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문화변동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또한 다문화주의 논의의 폭발적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 이 논문은 2011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1-T)

** 이 글은 2012년도 한국인류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연구위원

축약된 형태로 이주민관련 정부 정책과 학계, 이주민을 지원하는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교육 및 산업현장 등 이주와 관련된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글로벌’ 혹은 ‘세계화’라는 형용사가 누렸던 지위를 2000년대에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대체하게 된 것 같이 보인다.

한편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랫동안 외국인, 이주민 거주지역이었던 이태원이나 인천의 화교 밀집지역 외에도 서울 가리봉동과 대림동,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과 시흥시 정왕동, 대구 성서공단 주변 등에 이주민들의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은 ‘국경없는 마을’로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이주민 집주지역이다.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 내에서도 전체 등록외국인의 40%가 거주하고 있으며 원곡동내 다문화마을특구의 외국인거주비율은 등록된 수만 60%를 넘는다. 이주민의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각종 상점들과 이주민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사업체들도 이주민 집주지역으로서 원곡동의 주요한 경관을 형성한다. 이런 외형적 특징에 더해 원곡동은 다문화공동체운동인 ‘국경없는 마을’ 운동과 다양한 이주민지원단체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가 직영하는 외국인주민센터와 다양한 이주민 지원 시책 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원곡동과 같은 외국인 또는 이주민 집주지역을 ‘다문화’ 공간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이들 지역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그동안 인천 차이나타운이나 이태원과 같이 한국 내에 있지만 한국 사회와는 다른 이질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던 곳까지 ‘다문화’ 공간으로 명명되는 현상을 보면 ‘다문화’가 외국인/이주민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수

사(rhetoric)로 사용되고 외국인이나 이주민 집주지역이 다양한 문화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현대적 ‘다문화’성을 보여주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기대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사실 이주민 집주지역인 원곡동을 ‘다문화’ 공간으로 보는 인식은 다분히 수민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수민국 중심의 일면적인 시각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각자의 사회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가진 이주민들을 수민국 사회에 수용(accommodate)하기 위한 이념적, 정책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민들의 삶과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공간이 가진 역동성을 일국 내의 ‘다문화’라는 인식틀로 재현하는 것은 국제이주라는 국경을 넘는 활동을 수민국의 필요에 따라 제한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이는 이주현실에 대한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 오히려 원곡동과 같은 이주민 집주지역은 수민국 사회가 의식적으로 조성한 ‘다문화’ 공간이기 이전에 국경을 넘는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이 본국과 만들어낸 조밀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한, 일국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이었으며 이 초국적인 공간 내에서 이주민들은 이주국과 본국, 두 나라가 주는 기회를 동시에 활용해 자신들의 기회를 극대화하려 했다(예를 들어 Levitt 2001; Landolt 2001; Koo 2010 등).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이 글은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를 통해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국의 이주민 수용/배제 전략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초국적인 공간을 통해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이주민들의 초국적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이주민들의 전략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어 원곡동이 ‘다문화’ 공간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과 원곡동을 둘러싼 다문화담론이 전개되어 온 과정을 개관하고 원곡동에 형성된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 이주민들이 본국과 이주국에 동시에 소속되면서 펼치는 삶의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원곡동을 다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전략과 원곡동을 기반으로 한 이주민들의 초국적인 전략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다.

이 글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원곡동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류학적 현장연구¹⁾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곡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 공동체와 이주민 지원 종교·시민단체 및 쉼터,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외국인주민센터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참여관찰을 행하고 각 단체와 시설의 활동가, 직원 및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들과 비공식적 면담을 가졌다. 특히 원곡동의 한 다문화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그 곳에서 참여관찰을 하고 시설장, 교사, 결혼이주자 가정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과 비공식적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원곡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 관련 각종 행사를 참여관찰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다문화주의와 초국주의

1970년대 처음 공식화된 이래 다문화주의는 “인구구성, 정치 이데올로기, 공공정책, 제도, 문화적 표현, 윤리, 정치투쟁 및 탈근대적 특징 (Vertovec 2001: 3)” 등을 일컫는 말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종족적·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그 사회의 긍정적이고 구별되는 특징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이상 또는 가치체계, 그리고 문화적·종족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관리

1) 원곡동은 행정구역으로는 원곡본동, 원곡 1동, 원곡 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들은 원곡본동과 원곡 1동에서 집중적으로 거주,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로 된 원곡 2동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문화마을 특구가 포함되어 있는 원곡본동과 원곡 1동 지역에서 주로 수행되었다.

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정책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용법을 경험에 근거하여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이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assimilationism)가 가진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하였다. 20세기 초까지 유럽과 북미에서 이주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주된 방식은 동화였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어떻게 이주국의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오래된 관심으로부터 나온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이주국으로 동화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았다. 새로운 이민자들을 어떻게 미국인으로 만들 것인가가 20세기 초 미국 사회학의 주요관심사였으며 동화주의는 다양한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이민자들이 동화되어 미국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형성한다는 용광로(melting pot) 모형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의 출신국이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남미 등지로 다양해지고 이주민들이 이주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Glazer & Moynihan 1963)가 발표되면서 용광로 모델로 대표되는 동화주의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이차대전후 서유럽에서 일기 시작한 “종족의 부활(Smith 1981, Kymlicka 2012: 7에서 재인용)” 흐름 속에서 선주민이나 소수민족과 같은 소수집단들의 다문화적 시민권을 얻기 위한 노력에 이주민들이 가세하게 되면서 이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대두되게 된다.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Kymlicka 2012: 7): 중앙·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입법·의회 차원의 지지, 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문화주의 채택, 대중매체에서 소수집단의 재현 보장, 규정이나 관례에 의한 복장규정의 면제, 이중시민권의 허용, 종족집단의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이중 언어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불리한 이민자 집단을 위한

차별철폐조치.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시행되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법률, 정부, 시장, 교육 및 고용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민자와 소수종족에게 높은 정도의 동화가 기대되는 ‘약한’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대표권을 포함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제도적 인정으로 특징 지워지는 ‘강한’ 다문화주의”(Grillo 2000, Vertovec 2001: 3에서 재인용)”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그것이 보장하고자하는 차이가 결국은 한 국민국가 내부에서의 차이로 제한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서구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동화주의와 문화화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본질론적인 가정을 폐기하고 현실의 사회관계와 문화의 다양성 및 다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속지주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주된 소속이 한 사회에 있다는 생각과 오직 한 민족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Castle 2000, Vertovec 2001: 9에서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성원권이라는 측면에서 한 국민국가에의 소속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주민들이 반드시 한 국민국가에 소속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까지 국제이주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국민국가 사이의 이동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제이주자는 한 국민국가의 시민 혹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자였다. 다른 국민국가로의 이동은 이주자가 수민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정상”으로 여겨졌고(Al-Ali & Koser 2002; Beck 2000 참조) 이것은 일회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국제이주에 대한 가정과 전제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라는 인식경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방법론적 민족주의는 사회과학에서 민족국가를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나 민족국가와 그 국경을 사회분석에서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즉 “많은 사회과학이론이 특정민족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민족국가 내에 뿌리를 내리고 통합되는 것을 정상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사회적 정체와 실천을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Levitt & Glick Schiller 2004: 1007).” 그렇지만 국경에 의해 떠난 본국과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이민자들은 사실 이주 후에도 고국과 연결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20세기 초에도 이민자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과 물건을 보내고 본국의 국민국가 건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민자들과 본국의 연결 관계는 “시공간응축(time-space compression, Harvey 1989)”이라고 명명된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변화로 더욱 촉진되었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를 겪은 서구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의 재구조화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고 회수기간을 단축시키려 했다.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고 억압적인 정치체제가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보장하는 주변부로 생산설비를 옮기고(Basch, Glick Schiller & Szanton Blanc 1994: 25)” 이윤실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보, 상품, 자본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교통통신기술을 발전시키며 그 비용을 낮추어 갔다. 이런 자본 재구조화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양쪽에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Basch et al. 1994: 25-26). 중심부 국가에서는 탈산업화 현상으로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들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이 저하되었고, 자본 재구조화의 결과 중심부 자본이 침투한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늘어난 외채로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인 혼란이 발생하여 이농과 도시로의 이주, 이에 따른 실업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주변부 국가들의 실업, 반실업 상태의 노동력이 중심부 국가들로 이주하게 되지만 중심부 국가들의 도시경제가 쇠퇴하면서 이주민들이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제 이민자들은 본국과의 연결망을 통해 이런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해야 했고 시공간을축을 가능하게 한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은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본국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민자들이 “떠나 온 사회와 새롭게 정착한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다중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과정(Basch et al. 1994: 7)”은 초국주의로 개념화되고 곧 국제이주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까지 이민자들의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가 빠른 문화화와 수민국의 주류사회로의 진입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던 반면 오늘날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한 사회관계망의 형성(Portes, Guarnizo & Landolt 1999: 229)”이 이민자들에게 대안적 적응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이민자들이 본국과의 잦은 접촉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관계망의 축적은 이주국과 본국 사이에 유동적인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부르디외의 “장” 개념에 기반한 사회와 성원권이라는 관점을 제안한 연구(Levitt & Glick Schiller 2004)는 이 공간을 “초국적인 사회적 장(transnational social field)”이라고 명명한다. 부르디외의 개념에서 장은 특정한 자본²⁾과 그것에 대한 접근을 둘러싸고 행위자들이 그들이 가진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전략을 가지고 투쟁을 벌이는 사회적 각축장이다(Jenkins 1992: 84). 그런데 이 장이 국가의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걸쳐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회적 장은 국가의 경계 안에 있지만 다른 사회적 장은 국경을 넘어서 행위자들을 연결(Levitt & Glick Schiller 2004: 1009)시킬 수

2) 부르디외는 이 자본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으로 구분했다. 경제적 자본은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개인이 즉각,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과 재정적 가치이고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관계망과 연결망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문화적 자본은 대학학위와 같은 제도화된 형태나 신체적 특성과 같은 체화된 형태 및 의복, 장비, 예술소장품 같이 객체화된 형태로 개인이 소유한 상징적 자산이다(Bourdieu 1986, Kelly & Lusia 2006: 833, 834에서 재인용).

있는 것이다. 시공간응축의 결과 국경을 넘는 이동과 교류가 점차 일상화되면서 한 국가의 국경 안에 있는 사회적 장에서 문제가 되는 자본—“문화상품이나 라이프스타일, 주택, 지적인 자산으로서의 교육, 고용, 땅, 권력, 사회계급, 특권(Jenkins 1992: 84)”—은 어떤 것이든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 추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도미니카공화국과 미국에 걸쳐 있는 초국적 이주민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초국적인 사회적 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Levitt 2001: 7-9). 이전 식민제국에 정착한 사람들, 탈식민지 국가로부터 중심부국가로 이주한 노동자들, 냉전체제 붕괴 후 발생한 난민이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로부터 이주한 사람들, 민족주의적·억압적 국가들이 추방한 난민, 종족적 국외자 및 낙인찍힌 집단, 세계시장이 항상적으로 요구하는 숙련기술직·전문직 및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비숙련노동자들의 이동 등으로 촉발된 국제 이주는 일단 시작이 되면 혈연, 지연, 친구관계 등으로 이민자, 역이민자 그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대인적(interpersonal)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산된다. 이주가 확산되면서 새로 오는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줄 먼저 이민 와 있던 전문가 집단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이주의 위험성과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이주가 발생한다. 이렇게 접촉이 계속되면서 사회관계망은 더 깊어지고 확대되고 제도화되어 송출국과 수신국 사이에는 대인적인 사회 관계망을 넘어서서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연결시켜주는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 즉 초국적인 사회적 장이 형성된다. 수신국과 송출국 사이의 경제적 관계로부터 시작된 초국적인 사회적 장은 사회, 종교, 정치적 관계로 다양화되고, 제도화된 조직적 차원의 관계망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다양화되고 강화된 관계망,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 이민자들은 이주 후에도 본국에서의 소속을 지속할 수 있고 본국에의 참여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다.

초국적인 사회적 장의 개념은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이 자신들이 정착한 지역에 통합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 자신들의 모국에서의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즉 이주국과 본국이라는 국경을 넘어서서 두 사회에 동시개입(simultaneous embeddedness)되어 있는 주체로 이주민들이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민들의 복수의 국가에 대한 동시개입은 한 주체가 직접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도 실현되지만 복수의 국가를 잇는 초국적 이주민공동체(transnational migrant community) 혹은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의 참여로 실천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이주민들은 빈번하게 국경을 넘지 않아도 초국적 사회적 장을 통해 경제적(예: 송금), 사회문화적(예: 위성방송), 정치적(예: 본국 투표참여)으로 이주국에 살면서 동시에 본국에의 소속을 누릴 수 있으며 이런 동시개입을 통해 이주국에서의 자본과 본국에서의 자본을 결합시킬 수 있다.

3. '원곡동'의 형성: 다문화공간 만들기

원곡동은 이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역민, 지자체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면서 만들어진 한국내의 “공식적” 다문화공간이다. 7, 80년대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로 개발된 원곡동은 90년대 초부터 이주노동자들이 모여들자 이들의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생적인 이주민 집단 거주지역으로 바뀐다. 90년대 말부터 이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운동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은 ‘국경없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정부에 의해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어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원곡동’의 형성과정은 한국에서 이주민 밀집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사회가 그 공간에 어떤 의미와 기능을 부여하

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이다.

원곡동 개발은 한국 사회의 고도 산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76년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80년대 초 반월공단이 본격 가동되면서 원곡동에는 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는데 80년대 말까지 원곡동은 인구 3만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체가 밀집한 반월공단의 경기가 침체하게 되자 공단노동자들이 이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공단 주변 유흥상권의 발달로 인해 주거지역으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90년대 중반 이후 안산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곡동의 인구는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무렵 원곡동에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다. 1993년 도입된 산업연수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다. 이들의 유입은 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적 노동이주 및 민족귀환이주의 결과였다. 1970년대 초 ‘오일달러’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중동으로의 노동이주가 남아시아 및 서남, 동남아시아로부터 시작되어 1990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걸프전과 이에 따른 중동지역의 사회적 혼란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으로 노동이주의 목적국이 다양화되었고 한국도 그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또한 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재외동포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반월시화공단 내 3D 업종 중소기업장의 노동력 수요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시장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을 원곡동으로 불러들였고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과 이들은 지원하는 사회단체들³⁾이 설립되었는데 이런 발전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원곡동으로 모이게 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반월공단 노동자들

이 대량 실직과 함께 급속히 원곡동을 빠져나가자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우게 되면서 원곡동은 이주노동자들의 집주지역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2002년 불법, 합법으로 원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18,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당시 전체 원곡동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60여 곳의 식당, 잡화점이 운영되고 있었다(박배균·정건화 2004 참조).

이 시기에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원곡동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으나 1999년부터 안산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경없는 마을’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공동 마을 청소, 다문화 축제, 다문화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들과 지역민들을 아우르는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자는 운동이었다(오경석·정건화 2006 참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당시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현상과 맞물리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고(한국일보 2002년 4월 12일자,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6일 등 참조) 원곡동은 한국 사회의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원곡동이 공단주변 노동자 주거지 및 유흥지역에서 이국적인 경관을 가진 이주민 거주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안산시는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었던 이주민과 이주민 집거지역의 존재를 시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박세훈·이영아·김은란·정소양 2009 참조). 시는 2005년 원곡동 일부에 관광특구를 조성하려고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자생적인 이주민공동체가 파괴될 것을 우려한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원곡동 795번지 일대 367,541km²를 “다문화마을 특구”라는 이름으로 중앙정

3)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2006년 안산 이주민센터로 개칭), 갈릴래아 사목센터, 이주노동자 안산지부 등의 단체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원곡동에 설립되기 시작했다.

부로부터 특구로 지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민족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 정비되어 ‘다문화’ 거리로 조성되고 세계전통민속축제가 개최되는 등 다문화특구 특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관광지가 된 것이다.

이주민을 제도화된 방식으로 수용하려는 정부차원의 여러 시도도 안산시와 원곡동에서 먼저 실시되었다.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과 2007년 이후 10만 명을 넘어선 결혼이주민들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들⁴⁾과 지방정부의 시책들⁵⁾이 수립, 시행되면서 안산시와 원곡동에는 이 정책들이 집행되는 일선 기관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안산시에 외국인 전담부서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를 확대해 2008년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었다. 민간 기구들이 위탁 운영하는 다른 지역의 외국인 복지센터와는 달리 안산의 외국인주민센터는 시가 직영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정책, 다문화교류, 다문화교육, 외국인인권, 다문화아동 등의 사업 담당자들 외에도 다문화작은도서관,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외화송금센터, 글로벌아동센터, 무료진료센터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런 이주민 지원 기관들의 상당수는 이주민지원단체들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50여 곳의 안산시 소재 이주민지원 기관 및 단체들 중 24곳⁶⁾이 원곡동에 소재해 있는데, 이들은 독자적인 이주민 지원활동을

-
- 4) 예를 들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및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2006),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 등
 - 5) 거주외국인 지원조례(2007) 및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08)
 - 6) 국경없는센터, 귀환동포안산지회, 글로벌미션교회, 동산교회선교센터, 베트남선교원, 안산선교교회, 안산 조선족교회,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 안산 이주민센터, 온누리M센터, 중국예수중심교회, 천주교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동그라미배움터, 샤론의 집, 갈릴래아 어린이집, 다문화어린이집, 지구인의 정류장, 물맨동산 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안산 삼성어린이집, 안산 WeStart 글로벌아동센터, 우리함께다문화아동복지센터, 안산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용신평생교육원 등이 원곡동에 위치해 있다.

하고 자체적인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안산시나 중앙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이주민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센터 내의 이주민통역지원센터나 글로벌아동센터가 민간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노동부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안산외국인근로자원센터(AFC)⁷⁾를 설치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상담, 한국문화교육,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8년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잔동에 문을 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안산YWCA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아동센터가 “다양한 문화가 모이는” 어린이 도서관을 안산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제 원곡동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이 된다.

이상과 같이 원곡동이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집중 거주지역에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은 원곡동을 연구지역으로 한 이주 관련 주요 연구들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원곡동에 대한 이주 관련 연구들은 초기 원곡동에 형성된 이주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거주 지역에 대한 연구에 이어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최근에는 원곡동 내에서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연구경향은 이 연구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원곡동에 “다문화”라는 의미를 부여한 연구가 처음 나온 2006년 이전까지 원곡동에 대한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원곡동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를 전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원곡동에 대한 연구들이 ‘원곡동’과 ‘다문화’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 강화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7) 이 단체는 고잔동에 있었으며 지난 2011년 폐쇄되었다.

원곡동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먼저 이주노동자 집거지역의 형성과정과 이 공간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탐구로 시작되었다. 원곡동이 이주노동자들의 집중 거주지역으로 형성된 과정과 그 의미를 검토한 연구(박배균·정건화 2004)는 80년대 말 한국의 억압적 노동조절체계의 붕괴,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서의 특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대상의 주택·노동시장, 소수민족 사업의 성장 등이 원곡동에 이주노동자들을 모이게 했지만 이주노동을 주변화 시키는 정치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역차원의 차별과 배제가 원곡동이 안정된 다민족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원곡동에 모여든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이들이 겪는 법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제의 기제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이태정 2005)는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곡동이 주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가진 동시에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표출되는 역동적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곡동 일대에 형성된 외국인 대상 상업지역의 형성배경과 공간적 특성을 검토한 연구(장영진 2006)는 원곡동이 안정적인 소수민족상업 지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주된 구매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단기 유출입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원곡동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상당히 유동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집거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주민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 원곡동의 이주민 거주지역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지면서 원곡동에 거주하거나 원곡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주민들과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행해졌다. 먼저 이주민과 지역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적 공동체 형성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이론적 기반과 실천을 기록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연구(오경석·정건화 2006)가 행해졌다. 원곡동 이주민 집거지역에 다문화주의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은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 원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대처방식을 논의한 연구(이선화 2008)는 원곡동의 지역민들은 다문화주의적 공동체 운동 속에서가 아니라 상인-고객, 집주인-세입자의 관계와 같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축적을 통해 이주민을 이해하고 공존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원곡동과 같은 이주민 밀집지역이 사회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가시화되면서 이주민 밀집지역의 증가를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의 배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의 연구들도 증가하게 된다(김종오 2009; 윤영환 2009; 임준태 2010 참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원곡동은 “저개발국가로부터 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지역으로 인식된다. “빈곤, 범죄와 같은 여러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공간”(박배균·정건화 2004: 801)인 계토의 이미지로 재현된 것이다.

원곡동이 한국 사회의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원곡동이 다문화 정책과 담론의 객체로 대상화되어가는 현상을 분석하고 비판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원곡동에서 다문화 정책과 담론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재생산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한 연구(서민우 2009)는 두 주체들이 만나는 장에서 이주민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담론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현상을 목격한다. 또한 ‘다문화 1번지’ 원곡동의 담론과 실제 모습의 괴리를 지적한 논의(오경석 2010)에서는 “관주도로 한국인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책과 담론 중심의 원곡동의 다문화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거주하던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곡동은 여러 국가 출신의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다문화정책과 활동 및 이주 관련 현상과 과정들이 집중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다문

화”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현상이 되고 있다. 원곡동 내 유아 교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살펴본 연구(이부미 2011)는 원곡동이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역사와 특성, 이주민 자녀들의 인구학적 현황” 등으로 볼 때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점유공간”이라고 보았다. 원곡동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인 공동체의 커뮤니티 아트활동을 검토한 연구(김희순·정희선 2011)도 원곡동이 지닌 “다문화성”이 지역공동체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로 가시화되는 방식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원곡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다문화공간이 되면서 원곡동에서 발생하는 이주관련 현상 및 과정들이 모두 ‘다문화’로 의제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4. 이주민들의 초국적 전략

안산의 전체 등록외국인 수는 44,213명(2012년 2월 말 현재, 안산시통계)이며 이 중 54%인 23,883명이 원곡동에 거주하고 다문화마을 특구가 자리 잡은 원곡본동에 17,405명이 거주한다. 등록된 거주인구 외에도 한국국적 취득 이주민들, 미등록이주민들, 거주하지는 않지만 원곡동에서 활동하는 이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운영하거나 이주민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업체들 및 이주민지원단체 등 이주민 관련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 원곡동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원곡동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⁸⁾을 감안하면 원곡동은 단연 이주민들의 지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외국인”으로 범주화하는 인구는 서로 다른 국적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들이며 이들은 원곡동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점유하고 활동하고 있다.

8) 대부분 원곡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집을 임대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문화마을특구의 이주민은 모두 11,454명이며 국적 취득자는 517명, 등록외국인은 10,937명(2012년 8월 현재,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이다. 등록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보면 근로자가 8,110명, 결혼이민자가 930명이며 기업투자자, 유학생 및 기타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1,897명이다. 국적별로는 90% 이상이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7,962명, 중국인 2,223명)이고 그 외 우즈벡, 러시아, 베트남 등 총 30개국으로부터 온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특구 내 총 업소 1,355개 중 외국계 업소는 15개국 309개며 국적별로 중국이 241개소,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가 12개소, 베트남이 9개소, 네팔과 방글라데시가 7개소 등이며 그 외 태국(5개소), 러시아, 인도, 필리핀(각 3개소), 우즈베키스탄, 미얀마(각 2개소),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각 1개소)계 업소가 영업 중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44개소로 가장 많으며 슈퍼마켓 33개소, 호프 13개소, 미용업 12개소, 여행사 11개소, 노래연습장, 핸드폰, 의류 8개소, 다방 5개소, 및 그 외 PC방 등 기타 업종이 67개소이다. 음식점 중 39개소와 슈퍼마켓, 핸드폰, 의류판매업에 여타 국가의 업소가 소수 있지만 모든 업종에서 중국계 업소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원곡동은 거주하는 다수 이주민의 국적으로 봤을 때 한국계 중국인의 민족집결지(ethnic enclave)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 급속하게 유입된 한국계 중국인들은 원곡동의 상시적인 거주민들이며 지역의 주도집단이다. 한국계 중국인들은 원곡동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원곡동을 공간적으로도 점유하고 있다. 다문화 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은 광장은 낮이면 장기를 두면서 소일하는 재중동포 노인들로 가득 차 있고 밤이면 한국 트로트 음악에 맞춰 사교춤을 추는 중장년층의 한국계 중국인들로 메워진다. 또한 주로 한국계 중국인 남성들을 상대하는 수많은 티켓다방들이 특구 내 곳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여전히 원곡동에서 활

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과 자유로운 구직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조선족, 고려인과 달리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여타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배치 받은 사업장에서 매일 10시간 이상, 주야간 교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원곡동에 나올 기회가 거의 없다. 하지만 주말이 되면 원곡동은 반월, 시화공단은 물론 전국에서 몰려든 이주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 금요일에는 이슬람사원, 일요일에는 각 국의 이주민교회가 이주민들을 모으고 외환송금만을 전문으로 하는 네 곳의 은행은 번 돈을 본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려는 이주민들로 꽉 차 있다. 미혼의 이주노동자들은 이성의 이주노동자를 만나 데이트를 즐긴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식당은 모처럼 자기 나라 음식을 먹으며 자기 나라 TV를 보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이주노동자들로 붐비고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에는 한글과 태권도를 배우는 이주민들이 모여든다.

원곡동이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생활의 중심적인 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수민국이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자국의 종교기관, 이주민 공동체, 이주민 사업체 등 이주민들의 본국과 연결된 다양한 초국적인 자원이 가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원곡동에 모여들기 시작한 9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사회관계망과 이 축적된 초국적인 사회관계망을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된 이 자원들을 통해 이주민들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본국과의 사회적, 심리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본국에서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사실 원곡동의 이슬람 성원이나 여러 교회들, 주말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무리지어 있는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원곡동의 수많은 이주민 사업체들은 원곡동을 다문화공간으로 만든 익숙한 광경이다. 그러나 이 기관, 단체, 조직 및 사업체들이 초국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국내 이주민 사회를 넘어서는 구성 및 운영방식과 이들을 통해 국경을 넘는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곡동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기관들은 한국인 성직자를 둔 이주민종교공동체, 주류사회의 종교교단의 선교센터,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진 단일 종단의 지부, 그리고 이주민 본국의 성직자가 있는 이주민주도의 종교공동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과 이주민들의 본국에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회의 한국인 목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수시로 오가고 한국의 대형개신교회들은 중국, 동남아 곳곳에 선교사나 선교센터를 두고 있으며 파룬궁은 약 35개국에서 발행되는 관련매체 대기원시보를 원곡동 곳곳에서 배포하고 있다. 또 안산의 스리랑카 불교 사원은 본국으로부터 승려를 파견 받는 등 본국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조직들과 사업체들의 인적, 물적 교류의 주역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원곡동에 초국적 조직들이 들어서게 한 촉진자였으며 동시에 이 조직과 사업체들의 주요 참여자들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15개국에서 연평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반고용허가제⁹⁾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 매년 입국자의 대략 90% 정도가 본국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이런 조직들과 사업체들이 형성되고 그 초국성이 유지되며 역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초국적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국적 종교기관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이 종교기관들은 이주민들이 한국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안산의 한 대형개신교회의 캄보디아 선교원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된 한 이주노동자는 이곳을 통해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게 되어 한

9) 여기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안산에 있는 본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의 종교기관들을 통해 한국과 이주국 사이에 형성된 초국적인 공간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주의 계기가 생기면 그 연결을 활성화시켜 이주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또 초국적 종교 기관들은 이주국과 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이 모이는 곳이다. 원곡동에는 세 곳의 이슬람 성원¹⁰⁾이 있는데 그 중 한 곳인 안산 이슬람센터는 2002년 10월 개원한 이래 안산 지역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 성원에는 방글라데시에서 파견된 이맘이 상주하고 있는데 원곡동에 도착한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은 이곳을 반드시 거치게 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무슬림 관계자들도 성원을 수시로 방문한다.¹¹⁾ 또 원곡동의 이주노동자들뿐 만 아니라 유학생을 비롯한 인근의 무슬림 백여 명이 매주 금요일 1시경에 있는 예배에 모인다. 매주 토요일에는 6~7세 아이들을 위한 코란교실도 열어서 자녀들을 무슬림으로 교육하고 있다. 센터 1층에는 “무슬림 마트”라는 할랄 식품 판매 상점이, 3층에는 방글라데시 식품회사의 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 상점에 납품하는 무역상이 있다.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의 인적, 물적 자원이 이 센터에 집적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민 공동체들 역시 이주민들에게 초국적 자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이다. 원곡동의 이주민 공동체들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원곡성당을 중심으로 한 필리핀 공동체와 같이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의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시민단체나 외국인주민센터가 개설한 모임에서 만난 같은 나라 출신 이주민들이 모여서 결성되기도 한다. 또 같은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원곡동에

10) 방글라데시 무슬림 중심의 안산이슬람센터, 파키스탄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한 비랄(Bilal)이슬람 안산 성원, 그리고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주축이 된 시로톨 무스타킴(Sirothol Mustaqim) 성원(유일상 2011: 75)이 있다.

11) 2011년 6월에 열린 한 금요일예배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네 명의 무슬림 순례자들이 참석하였다.

월세방을 얻어 놓고 평일에는 흠어져 공장에서 일하다 주말에 모여 “늘고 기분 내는” 소규모 모임들도 이주민들에게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센터의 태권도 교실에서 만난 필리핀 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한 공동체는 원곡동에서 이주민공동체가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매주말 원곡동의 이주민 쉼터에 모여 태권도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것은 태권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도장을 차릴 수 있는 문화자본이기 때문이다. 결혼이주민들은 댄스팀을 구성해서 ‘다문화’ 행사를 다니며 유료 공연을 한다. 또 크리스마스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연습이 끝나면 모여서 노래방을 가기도 한다. 이 모임에 결혼이주민의 자녀들은 자주 참석하지만 한국인 배우자는 거의 참석 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한국인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태권도 사범이나 이들과 친한 이주민 지원활동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고 이들도 초청에 의해서만 참석하였다. 이들은 공동체에 한국인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렸는데, 예를 들어 한 이주민 지원활동가가 댄스팀의 매니저를 맡아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공동체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필요한 자본을 얻으면서 동시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착한 이주민들로부터 이주국 사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이주민들 역시 본국민들과의 사회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계속 새롭게 유입되는 본국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필리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한국 사회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기능하는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본국으로부터 계속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결혼이주민들의 ‘필리핀성’이 갱신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공동체는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기보다는 이들이 계속 초국적인 이주민으로 남아있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교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곡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주민 대상 사업체들도 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초국적 자원이다. 이들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본국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물질적 기반이다. 원곡동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사업체는 그 종류와 수가 많지 않지만 그 하나하나가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 원곡동에 있는 한 서남아시아계 음식점은 차와 음식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국행 비행기표를 알선해주는 여행사이기도 한다. 또 27곳에 달하는 원곡동내 중국계 슈퍼마켓은 중국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가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유입되는 물품들을 한국에 와 있는 해당 지역 출신 이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다민족 사업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체들은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이주민들을 필요로 한다. 원곡동에 있는 많은 “여행사”는 중국계 이주민들의 비자 및 입출국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데, 이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붙여놓은 “H2, H4 비자로 자녀를 겨울방학 때 데려오자-3개월”과 같은 내용의 광고 전단을 원곡동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원곡동과 중국 사이에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형성하고 확대하는데 이런 이주민 사업체들, 특히 입출국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여행사”나 “행정사” 등의 영업활동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원곡동에 있는 수많은 이동전화판매점도 이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초국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스마트폰은 한국에 처음 도착한 이주노동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일한 한국 내 연락처이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무료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가지고 있던 것은 고향으로 보내 줄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안산역 상가 내에만 열 곳에 가까운 이동전화 매장이 있고 다문화마을 특구 내에도 총 50개소의 이동전화 매장들이 있다. 이 매장들은 거의 내국인 소유지만 대부분 이주민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이주민들은 언어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국의 최신 음악, 영화, TV나 매체를 접할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 등도 이주민들에게는 주요한 자원인데 원곡동의 이주민 쉼터나 여러 이주민 지원기관 단체 등은 이주민들이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렇게 다양한 초국적 자원을 통해 이주 후에도 본국과의 관계망을 유지하는데 원곡동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망이 집적되어 있는 사회적 공간 가운데 하나이다. 이주민들은 본국을 방문하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등 직접적인 초국적인 실천을 하기도 하지만 원곡동에 형성되어 있는 초국적인 공간에 속해 있음으로 한국에 살면서도 본국에 동시에 소속되고 개입할 수 있다. 이주민들은 한국의 주류사회에서 이주노동자로, 결혼이주민으로 살지만 이 공간에 있는 이슬람 성원을 통해서, 자국 출신의 이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본국의 상품들을 통해서 그리고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본국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저임금의 단순기술자로 일하는 공장에서나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가정에서는 말이 서툴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여겨지지만 원곡동이 제공하는 다양한 초국적 자원을 활용한 본국에의 동시 소속과 개입을 통해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무슬림으로, 또 본국의 친족과 사회집단에서 각자의 지위를 가지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이렇게 원곡동에 형성된 초국적 사회관계망을 통해 입국하고 본국에서의 자본축적을 위해 주기적으로 송금을 하며 한국에 체

류하면서도 끊임없이 본국과 교류하는 등 활발하게 초국적 실천을 한다. 흔히 비이주민들은 이주민들이 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궁금해 한다. 원곡동의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 동기는 이주민의 수만큼 다양하고 독특하다. 전직 군인이었던 한 스리랑카 이주민은 자국 내에서 반군과의 내전이 끝나 급여가 줄어들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필리핀 출신 한 결혼이주민은 통일교의 축복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사실 이주민들에게 이주동기를 확인하는 일은 국제이주를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농민들이나 더 좋은 조건의 노동시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동은 ‘산업화’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행위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되고 그 동기가 확인되어야만 했다. “국민국가 간의 경계에서 유동성이라는 장점은 범법의 가능성을 가진 이민이라는 사회약으로 돌연 바뀌게 되는 것이다 (Beck 2000: 93).”

그러나 이주민들의 한국행은 이주민 본국에 형성되어 있는 한국과의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특별히 동기화된 사람들이 이주노동을 결심하고 대상국을 찾는다고보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 가서 돈 많이 버는 것 보고” 자신도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할 결심을 하게 된다.¹²⁾ 한국과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더 발달된 일부 이주국의 경우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이 문화화되어 있다. 멕시코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주노동이 하나의 통과의례이며 돈을 벌기 위한 당연한 길로 여겨지는 것(Kandel & Massey 2002, Levitt & Glick Schiller

12) 이것은 송출국의 특정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는 남동부지역인 컴퐁짬에서, 인도네시아는 술라웨시의 마나도지역과 수마트라 니아드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2004: 1016-1017에서 재인용)처럼 베트남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이 젊은 남자라면 “군대를 가듯이 당연히 한번 갔다 와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문화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본은 명백히 경제적 자본이다. 그러나 이 자본은 이주국에서가 아니라 본국에서 필요한 자본이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4~5년 정도 있으면서 3만 불 정도” 모아서 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땅을 살 계획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다. 이들이 목표하고 있는 3만 불이라는 돈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주민들의 본국에서는 자영업주나 지주가 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자본가가 되고 싶은 노동자”로 표현했다. 또 이들의 경제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가정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대학진학을 위해 이주노동을 시작했고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가족이 살 집을 사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 자본을 얻기 위해 먼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과정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제도화되었다. 한국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주민들과 사업주들의 신청절차와 선발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주과정은 한국 입국 이전에 이미 시작된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개 1년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캄보디아 출신 한 이주노동자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1년 동안 프놈펜에서 하숙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한국어 학원비가 3개월에 20~25만 원, 기숙사비가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때문에 1년 동안 가족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했다. 이 때 들어가는 비용과 입국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족들은 큰 빚을 지기도 한다.

한국 입국 후 처음 몇 개월 동안 혹은 길게는 일, 이년 간 이주노동자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입국을 위해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 빚을 갚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본국에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에 대략 2~300불 정도”를 집으로 송금한다.¹³⁾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송금한 돈은 이들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자원을 투자한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는데도 쓰이기 때문에 자본축적기간은 처음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빨리 빚을 갚고 돈을 모으기 위해 평일에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일요일에 “인근의 미나리 농장에서 일당 4만 원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¹⁴⁾

자본축적에 성공한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원하는 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비자연장을 계획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불법체류를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치 못해서 하는 선택일 가능성이 크고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2~3년 지나서 귀국 안하고 비자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됐지만 “돈[이] 있는데[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없어[으면] 행복하지 않아서” 또는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나 매일 전화로만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 때문에 약 5년여의 체류기간이 끝나면 돌아갔고 돌아갈 계획을 가지

13) 원곡동에 있는 한 은행의 외환송금센터에서만 일요일마다 500명 정도가 송금을 한다고 한다.

14) 이런 모습으로 인해 흔히 이주노동자들은 ‘못살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절박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단기이주노동은 본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더 큰 자본을 마련하려는 투자이고 기획이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자본축적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 이들을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한국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한국사회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고 있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기술과 기능을 배우는데도 관심이 많다. 이들은 휴일이면 이주민 지원기관, 단체, NGO 등이 개설하는 과정에서 한글, 태권도, 미용, 영상제작, 중장비운전 등을 배운다.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기술과 기능을 배우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것을 본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본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이다. 한 이주민 지원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이주민들이 스스로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진교실을 개설했는데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합성사진 만드는 방법과 같은 사진기술이나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민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기능을 본국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이주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온 사범은 자신에게 태권도를 배운 이주민들이 세운 태권도장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각 국에 여러 곳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여성 결혼이주민의 입국 역시 대부분 초국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한 친척이나 친구의 소개를 통하거나, 결혼 중개업체를 거치거나 통일교의 축복결혼을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 이주민들에게 어떻게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아는 언니’나 ‘한국에 있던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고 이야기한다. 이 경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친척이나 친구가 소개해 주었을 수도 있고, 결혼중개업체를 ‘아는 언니’나 ‘한국에 있던 친구’로 완곡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으며 그 언니나 친구가 그들을 결혼중개업체에 소개해 주었을 수도 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들의 결혼이야기에서는 결혼중개업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한 한족 결혼이주민은 중국의 한 도시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현지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이 그 도시와 전혀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원곡동에서 여성 결혼 이주민들의 초국적인 사회적 장애의 참여는 언뜻 보기에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여성 결혼이주민들은 무엇보다 남편, 자녀, 시집식구들과 가족단위로 생활하고 한국인으로서의 동화 압력이 강하여 이주민 사업체를 이용할 기회가 적고 초국적 종교기관이나 자신들의 이주민 공동체와의 강한 연결이나 결속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주민들 역시 본국의 가족, 친지들과 연결망을 결혼 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조건이 되면 이런 연결망을 활성화시켜서 초국적인 행위자로 나서게 된다.

여성 결혼이주민 대부분은 메신저나 국제전화, 화상전화를 이용해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일상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 아는 언니 소개로 결혼한 위의 결혼이민자도 “중국 사람이면 없는 사람이 없는 ‘큐큐(QQ)’로” 가족,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통일교의 축복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민은 하루에 길면 “두 시간씩, 세 시간씩” 필리핀에 있는 동생과 연락을 한다고 한다. 본국에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데 “크리스마스[나] 스페셜데이 때, 아무 때나 돈 있을 때, 옷이나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나 컴퓨터” 같은 것을 “점보박스”로 보낸다.¹⁵⁾ 또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기도 한다. 앞의 한족 결혼이민자는 결혼 몇 년 뒤 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그 동생도 2년 전에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다. 본국 방문도 드물지 않게 이루어진다. 방문 횟수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일 년에 두 번에서 9년에 두 번까지 다양하고 “폐암에 걸린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나 친지 결혼식 참

15)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직접 택배방식인데 대략 75×75×55 내외 크기의 상자에 물건을 넣어서 부치면 한 달 정도 걸려 집까지 배달해준다고 한다. 비용은 마닐라까지 무게에 관계없이 한 상자에 15만 원 정도이다.

석과 같이 방문목적이 뚜렷한 경우도 있지만 “2년에 한번 정도”하는 주기적인 방문도 있다. 이 경우 일, 이주일 정도 머물다 돌아온다. 여성 결혼이주민들이 본국을 방문할 때는 대부분 아이들을 동반하지만 남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방문일 경우에만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속된 연계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활성화된다. 부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언니에게 본국에 있는 동생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 힘들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고 정신질환을 가진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한 결혼이주민은 휴가차 본국에 갔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좋은 생활과 미래를 아이들에게 주는 [본국]에서 아이들을 입학시키기로” 한 것이다.

결혼이주민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와 실천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와서 생활하다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 결혼이주민의 가정은 초국적 네트워크와 실천의 강도에서 여성 결혼이주민들의 가정보다 더 강한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나 이민 사업체 소유자로 이들은 결혼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초국적인 사회장에 개입되어 있었고 이들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결혼 후 보다 쉽게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나 남편의 본국과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결혼이주민들은 결혼과 함께 초국적인 삶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남성결혼이주민들은 여성결혼이주민들보다 이동성이 더 높다. 이들은 생업을 따라 가족과 함께 본국으로 귀환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은 아버지의 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성결혼이주민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나라로부터 받는 문화적 영향이 여성결혼이주민 자녀들이 어머니의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가 많다.

5. 다문화공간의 초국적 이주민

원곡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집거지역에서 다문화주의적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그리고 계토의 이미지를 거쳐서 최근에는 한국사회에 막 출현하기 시작한 다문화성을 보여주는 다문화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공간으로서의 원곡동의 이미지는 역사적 과정과 집단적 기억의 축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문화 담론과 정책의 유포 결과로 보인다. 급격하게 증가한 담론과 정책이 원곡동과 ‘다문화’ 간에 조건반사적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주민 집거지역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될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공간이라는 이미지 외에 계토로서의 이미지나 한국계 중국인의 집거지로서의 이미지 등 원곡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복합적 성격 가운데 어떤 측면이 선택적으로 강조될 것인가는 재현의 주체와 목적, 그리고 주체와 재현되는 대상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원곡동이 다문화공간으로 인정받는 근거는 첫째, 외모와 언어에서 가시적 차이를 보이는 여러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많이 있고 둘째, 이주민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셋째, 이주민지원단체가 집중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넷째, 이주민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이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던 이태원이 다문화공간의 하나로 재현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었으며 그전까지는 한국 내에 존재하지만 “외국인들의 시대” 혹은 “치외법권에 가까운 예외적 공간”(송도영 2011: 57-58)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은 첫째와 둘째 조건이 다문화공간으로 재현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집거지 원곡동에 다문화주의라는 의미를 처음 부여한 것은 이주민을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하려는 이주민 지원운동단체였고 다문화공간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 곳에 정부와 이주민지원단체들이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 기관,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안산시가 그 공간을 다문화마을 특구로 조성하면서 다문화공간의 이미지는 대중적으로 더욱 확고해졌다.

결국 다문화공간이 외국인 거주지나 이주민 집결지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외국인 혹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보호 혹은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진 이국성이 한국의 제도와 정책으로 통제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곡동을 다문화공간으로 재현하는 것은 탈영토화하기 쉬운 외국인 혹은 이주민들의 집거지를 수민국의 국경 내의 사회적 공간으로 포섭하거나 전유하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원곡동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제도화된 공간이다. 이 공간 내에서 이주민들은 비정상적으로 여겨 지지 않고, 본국 출신의 이웃들과 함께, 이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살 수 있다. 또한 원곡동을 다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은 비숙련이주노동자들이 도시의 새로운 하위계층으로 형성되고 이들의 집결지가 계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류 사회의 노력일 수도 있다. 이주민들은 흔히 빈곤과 문화적 갈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서 그 문제들이 체화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원곡동에 소재한 한 다문화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다수가 정서, 사회관계, 학습 등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이 아이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이주민지원단체가 설립한 이곳에서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돌아올 때까지 돌봄을 받고 사회복지, 심리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또 원곡동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사업장 내 차별과 폭력, 열악한 근로조건 등의 문제에 대해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은 국가가 포섭할 수 있는 이주민만을 위한 공간이다. 원곡동에서 이주민들은 한국 내 체류신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활동의 영역에서 차이가 난다.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들은 원곡동 다문화공간의 공식적 주인공이다. 이주민 지원기관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배분된다. 예를 들어 안산시 외국인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이 시간대에 일을 해야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다. 또 재외동포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들은 원곡동 외국인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곡동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등록된 이주노동자들도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일부 받기는 하지만 주로 주말에 원곡동에 와 이주민 지원 종교,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국 상점을 이용한다. 그러나 원곡동에 있는 다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난민 등은 제도화된 다문화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 오히려 “미등록체류자 단속 강화(오경석 2010: 40)”가 이루어지면서 원곡동에서 “미등록이주민이 점점 사라져(서민우 2009: 109)”가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채택하고 이주민집단을 수용하기 위한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다.¹⁶⁾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다문화주

16) 한국에서 “다문화”라는 용어의 사용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Kim 2010)는 다문화라는 용어의 사용이 언론매체와 학술연구에서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하면서 이런 다문화 담론의 전 사회적 유포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동시에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의는 모든 이주민들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의 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여성과 그 자녀라는 특정 집단의 동화를 정당화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동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서 이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접하고 있는 미숙련 이주노동자들은 그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과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지원과 전문직들을 유인하려는 정책이 위주를 이루고 이주노동자는 법률적, 제도적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원곡동과 같은 이주민 집주지가 “다문화” 공간으로 재현될 때 그 곳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거나 혹은 은폐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하층계급으로서 이주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문화의 문제로 인식되어, 이주민들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문화에 적응하면 극복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생산된다. 예를 들면 이주노동자들은 ‘말’이 서툴고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말’과 ‘문화’에 대한 익숙함보다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단순기술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주노동자들이 수 년 동안 해당 직종에서 일해서 한국인 직원보다 기술이 더 숙련되고 생산성이 더 높아져도 급여와 대우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모범 소수민(model minority)’ 만들기 전략도 동원된다. 이주민들 가운데서 일정한 성취를 이룬 개인들을 모델로 만들어 이주민으로서의 성공이 주류사회가 인정한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 시키기도 한다.¹⁷⁾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문화’가 내부의 민족적 다양성을

의미한다면 세계화의 의미도 일정정도 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 담고 있는 세계화의 의미는 90년대 ‘글로벌’의 세계화가 추구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이 주로 공적 영역에서 제1세계를 ‘향한’ 개방과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외향적 세계화를 지향했다면 다문화는 일상의 영역에서 제3세계에 ‘대한’ 포용과 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내향적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의 세계화가 사실은 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면 ‘다문화’의 세계화는 2000년대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인구구성의 종족적 이질화에 대응한 ‘국민 만들기’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

원곡동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포섭과 배제 전략이 이주국과 본국이 주는 이점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이주민들의 초국적 전략과 만나는 지점이다. 원곡동에 다문화공간으로의 특성과 초국적인 사회적 장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원곡동에 있는 베트남 음식점들이 한국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다문화’ 음식점과 이주민들이 주 고객인 베트남 식당들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베트남 음식점 한 곳은, 주인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은 전혀 오지 않는다. 또한 낮에 광장을 점유하고 장기로 소일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국계 중국인 노인들은 ‘다문화’ 공간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가족 자유왕래 제도를 통해 중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모국에 거주하는 초국적 가족의 일원이며 밤마다 광장을 가득 메우면서 한국 트로트 음악에 맞춰 사교댄스를 추고 있는 중장년층의 한국계 중국인들은 원곡동을 보다 ‘이국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문화적 취향의 표현을 통해 원곡동 광장을 자신들의 정체성이 관철되는 초

17) 안산시에는 전국 규모의 이주민 대상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체와 이주민지원 기관 단체들로부터 추천 받은 ‘모범’ 결혼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 중 각 1명씩을 선발해서 시상한다.

국적인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주민들은 원곡동이 다문화공간으로서 주는 이점은 거부하지 않지만 다문화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초국적인 사회적 장으로서의 원곡동이 주는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한다. 비록 이주민들의 초국적인 전략이 이주국에서의 빈곤과 정치적인 소외를 극복하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서 이주민들은 본국의 사회적 장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도 본국에서는 얻기 힘든 자원을 이주국에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이주민들이 국경으로 가로막혀 있는 두 개의 독립된 사회적 장 사이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주국과 본국을 연결하는 단일한 사회적 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이 단일한 사회적 장, 즉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 얻고자하는 자원은 반드시 이주국에서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민들이 본국에서 구하기 힘든 자원을 얻기 위해 본국의 사회적 장을 떠나서 이주국의 사회적 장으로 이동한다는 과거 이주의 패러다임에서는 이들이 처음 이주국에서 얻게 되는 자원은 이주국의 사회적 장의 맥락에서 높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이주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주국에서의 사회적인 관계가 없는 이주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시간이 지나 이들이 이주국의 문화에 ‘동화’되고 새로운 사회관계를 수립하면서 이주국의 사회적 장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자원을 획득하여 ‘성공’한 이민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국과 본국을 잇는 단일한 사회적 장내에서 자원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서 서로 다른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고 교환될 수 있다.

캐나다의 필리핀 이주민들에 대한 한 연구(Kelly & Lusia 2006)는 이주민들이 이주국과 본국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자본을 초국적인 사회적 관계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필리핀 이민자들이 낮은 지위의 직업에서 일하면서 받는 급여는 캐

나다의 맥락에서는 높게 평가될 수 없는 자본이지만 초국적인 맥락에서는 훨씬 높게 평가된다. 또 캐나다 맥락에서 낮은 지위의 직업에서 일하면서 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문화적 자산의 감소는 해외에서 살고 있다는 점, 즉 높은 소비수준과 라이프스타일 같이 본국에서 높게 평가되는 문화적, 경제적 자산으로 합리화될 수 있다. 또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주국에서 획득한 경제적 자본은 본국에서의 문화적 자본으로 바뀐다.

이주민들은 이주국과 본국 사이의 초국적인 사회적 장을 통해 두 나라에 동시에 소속됨으로써 두 국가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저임금의 단순노동자로 일하면서 본국에 자본을 축적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 자본을 교환한다. 이들이 한국에서 벌어서 송금하는 돈은 본국에서 땅이나 집과 같은 다른 경제적 자산으로 교환되거나 가족들이 학교를 다니거나 귀국한 후 본인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사용됨으로써 문화적 자본으로 바뀐다. 또한 본국에서 자본을 축적해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획득한 경제적 자본은 본국에서 경제적 자본으로는 물론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교환되는 것이다.

결혼이주민들도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의 자본의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원곡동에서 만난 많은 여성 결혼이주민들은 본국의 가족들에게 때때로 전자제품 등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는데 이 선물들은 ‘외국’에서 보내는 희소성 있는 위세물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질 좋은 수입품으로서의 의미가 더 커 보인다. 과거 이주민들이 보내오는 물건이 본국에서 경제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으로의 의미가 더 컸던 반면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서 이주민들이 본국에 보내는 물건은 경제적 자본으로의 의미가 더 크다.

이주민들은 이처럼 막연히 잘 사는 나라에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장에서 얻고자 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 국경을

넘어 만들어진 초국적인 사회적 장에 전략을 가지고 참여하여 활동하는 주체들이다. 그러나 흔히 원곡동에서 이주민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 돈을 더 벌기 위해 기회만 주어진다면 ‘불법’으로도 한국에 체류하려는 잠재적인 불법체류자, 가난과 좌절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외국인근로자,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고생하는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수용과 관리 또는 “행정과 복지의 대상(서민우 2009: 93)”으로 타자화된다. 이와 함께 이주민들을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인적자원으로 보는 시각 역시 집단적인 고정관념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주민에 대한 동일한 타자화이다. 이는 이주민들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온 일탈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기본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주국 사회에 동화되든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국적인 사회적 장의 관점이 가지는 강점은 이주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단절적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장을 확대하는, 혹은 확대된 사회적 장에 참여하는 연속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초국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한 국가에 정착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움직임이나 두 국가에 동시에 소속되는 이중소속이 오히려 규범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은 이 이동성과 다중적인 소속을 자본으로 동원하고 있다.

2011년 한 민간사업체가 17개의 베트남 채널을 방송하는 베트남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를 개국했다. 한국과 베트남간의 초국적인 사회적 장이 확대되고 강화된 결과이며 이 방송이 성공한다면 역으로 두 나라간의 초국적인 사회적 장은 더욱 확대하고 강화될 것이다. 물론 상업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TV 가입을 홍보하는 전단에 있는 “글로벌 리더를 향한 베트남어 조기교육”이라는 내용의 문구는 초국

적인 사회적 장 내에서의 동시 소속을 개인적 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국가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문화’ 정책을 통한 국민 만들기를 하고 있는 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중적 소속이라는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길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TV를 통한 베트남어 조기교육으로 장래에 한, 베트남 차세대 무역인, 경제인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어 엄마의 고향 베트남에서 멋진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6. 결론

원곡동에서 이주민들의 초국적인 네트워크 형성과 실천은 이주민들의 생활의 장이 한 국가 내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오히려 이들의 이주는 동시소속이라는 방식을 통해 두 개의 장소/국가가 주는 이점을 결합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곡동은 이주민들의 동시소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물적, 사회적 토대를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반면 원곡동을 다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초국적 네트워크와 실천이 형성한 초국성을 내부의 다양성으로 수용하려는 국민국가의 전략일 수 있다. 2009년 원곡동의 일부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한 것은 수용을 넘어 이 공간을 국가가 전유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국민국가가 정한 범주를 벗어나거나 수용능력을 넘어서거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이주민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데도 동원된다. 실제 원곡동의 초국성 혹은 다양성은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실천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으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 이주노동자는 배제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파행성일 수도 있지만 이민정책으로서 가지는 다문화주의의 본질적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민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이민자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김현미 2008 참조).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틀 내에서는 한 국가에 정착하지 않고 국가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드는 사람들은 국가의 수용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또 경계를 넘나드는 직접적인 실천은 하지 않지만 초국적인 공동체나 사회적 장을 통해서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동시소속은 동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주국의 소속이 우선된다. “개인의 문화유산, 삶의 방식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유라는 새로운 문화주의적 개념들은 여전히 수민국의 국어, 제도, 가치의 우선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에 의해 제한(Pearson 2004: 299)”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곡동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주민들은 한국에 살지만 오히려 본국의 사회관계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본국의 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우선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이주민들의 초국적 네트워크, 실천 그리고 이에 따른 동시 소속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식과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논문접수일: 2013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 2013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9일

참고문헌

김종오

- 2009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7: 97-127.

김현미

-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57-79.

김희순 · 정희선

- 2011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다문화주의의 실천: 안산시 원곡동 리트머스의 사례”, 『국토지리학회지』 45(1): 93-106.

박배균 · 정진화

-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박세훈 · 이영아 · 김은란 · 정소양

-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보고서 2009-19.

서민우

- 2009 “다문화의 정치적 장에 관한 연구: 안산시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5(2): 79-114.

송도영

- 2011 “다문화 도시구역 사람들의 소통방식: 서울 이태원 탐사”, 『한국의 다문화공간』 서울: 현암사, pp.49-80.

오경석

- 2010 “다문화중심도시의 이상과 현실”, 『국토』 4월호, pp.39-45.

오경석 · 정진화

-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

유일상

2011 “초국적 공간의 구성과 이주전략: 국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사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영환

2009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치안확보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5: 137-183.

이부미

2011 “다문화교육의 혼돈과 이해의 과정: 안산 ‘원곡동’ 현장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5): 103-127.

이선화

2008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이태정

2005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연구: “국경없는마을” 사례”, 『사회연구』 10: 139-178.

임준태

2010 “외국인범죄대책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9: 291-342.

장영진

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23-539.

Al-Ali, Nadje and Khalid Koser

2002 “Transnationalism,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ome,” in Nadje Al-Ali and Khalid Koser ed., *New Approaches to Migration?: Transnational Communities and the Transformation of Home*, New York: Routledge, pp.1-14.

Basch, Linda, Nina Glick Schiller, and Cristina Szanton Blanc

1994 *Nations Unbound: Transnational Projects, Postcolonial Predicaments, and Deterritorialized Nation-States*, Basel: Gordon and Breach.

Beck, Ulrich

- 2000 “The Cosmopolitan Perspective: Sociology of the Second Age of Modern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 79-105.

Glazer, Nathan and Daniel P. Moynihan

- 1963 *Beyond the Melting Pot: The Negroes, Puerto Ricans, Jews, Italians, and Irish of New York City*, Cambridge, MA: MIT Press.

Harvey, David

-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Jenkins, Richard

- 1992 *Pierre Bourdieu*, London; New York: Routledge.

Kelly, Philip and Tom Lusi

- 2006 “Migration and the Transnational Habitus: Evidence from Canada and the Philippin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831-847.

Kim, Andrew Eungi

- 2010 “Korean Multiculturalism: The Genealogy of the Concept, Shifting Meanings, Issues and Implications”, 『아세이연구』 53(2): 102-129.

Koo, Bon-giu

- 2010 *Koreans between Korea and New Zealand: International Migration to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University of Auckland, Unpublished PhD Thesis.

Kymlicka, Will

-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Landolt, Patricia

- 2001 “Salvadoran Economic Transnationalism: Embedded Strategies for Household Maintenance, Immigrant Incorporation, and Entrepreneurial Expansion,” *Global Networks* 1: 217-242.

Levitt, Peggy

2001 *The Transnational Village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vitt, Peggy and Nina Glick Schiller

2004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Migration: Conceptualising Simultanei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1002-1039.

Pearson, David

2004 Rethinking Citizenship in Aotearoa/New Zealand. in Paul Spoonley, Cluny Macpherson and David Pearson ed., *Tangata, Tangata: The Changing Ethnic Contour of New Zealand*, Melbourn: Dunmore Press, pp.291-314.

Portes, Alejandro, Luis Guarnizo and Patricia Landolt

1999 “The Study of Transnationalism: Pitfalls and Promise of an Emergent Research Field,” *Ethnic and Racial Studies* 22: 217-237.

Vertovec, Steven

2001 “Transnational Challenges to the ‘New’ Multiculturalism,” Paper presented to the ASA Conference held at the University of Sussex.

<기타자료>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2011년 다문화마을 특구 상권 및 인구동향 조사결과 보고”.

안산시통계 2012년 2월 “동별인구현황”(http://stat.iansan.net/02_sub/body01.jsp?NT_ID=82&flag=VIEW&SEQ_ID=315125&page=3).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2년 8월 9일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140만 돌파, 주민등록 인구의 2.8%”(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bbsSeq=1022589).

오마이뉴스 2002년 12월 6일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안산 ‘코시

안 타운'을 아십니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7470).

한국일보 2002년 4월 12일 “외국인 노동자·지역주민 더불어 삽니다”
(<http://www4.hankooki.com/people/200204/np20020412185848hg010.htm>)

Multiculturalism, Encyclopedia of Canada's Peoples (<http://www.multiculturalcanada.ca/Encyclopedia/A-Z/m9>).

〈Key concepts〉: multiculturalism, transnationalism, Wongok-dong, immigrants

Multiculturalism and Transnational Migrants: A Case Study of Wongok-dong, an Immigrant-dominated Area of Ansan City in South Korea

Koo, Bon-giu*

This paper investigates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immigrants' transnational strategies through a case study in an immigrant-dominated area of a local city in South Korea. The study is based on anthropological fieldwork conducted between 2011 and 2012 in a neighborhood called Wongok-dong in the city of Ansan, located about 40 km southwest of Seoul. Wongok-dong is recognised as a representative multicultural area in South Korea. It has the highest percentage of immigrant population in the country along with well-developed ethnic businesses and vario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supporting immigrants. In 2009 a specific area of Wongok-dong was designated as the "Multicultural Village Special Zone" by the government.

The paper first briefly reviews the origin and limit of multiculturalism as an immigration policy and introduces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approach as a new perspective to

* Research Fellow, Gyeonggi Institut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Migrants' Human Rights

conceptualize international migration. It then examines the process of Wongok-dong, which originally was a residential area for migrant workers, being redeveloped into a multicultural space by the government while adopting multicultural discourse. The paper goes on to describe international migrants' transnational strategies in Wongok-dong to combine benefits from both sending and receiving societies with their simultaneous embeddedness in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Finally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the multicultural discourses and the transnational strategies are discussed.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effort to build Wongok-dong as a multicultural area is an attempt to institutionally accommodate and manage international migrants, but ironically this effort is largely based on the transnational networks and practices initiated by the international migrants, especially the 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y because of their temporary stat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is needed to include these transnational migrants acknowledging their dual belongings.

